

21세기 정보사회, 개방화



친애하는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희망에 찬 1996년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특히 연말연시 우편물 소통을 위하여 연휴를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애써 주신 일선 우체국의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처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이 큰 보람을 얻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묵묵히 맡은 바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소득 1만불 고지를 넘고 수출도 1천억불을 달성하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또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해 준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정보통신부가 이름이 바뀌고 정부내의 역할도 달라지면서 여러가지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임 경상현장관님의 지도력과 우리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정보통신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이와 같은 발전의 토대 위에서, 올해 우리는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고, 이 정보화의 물결을 누가 먼저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활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국가의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정보화시대가 제대로 활착된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모순이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고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1996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가일층 가속화시켜, 과거 개발년대에 경제기획원이 수행했던 것과 같은 선도적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정보통신부가 발족된 근본적인 뜻도 그러한 정보사회를 앞당겨서 열어달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21세기 정보사회,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해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1996년은 단순한 새해가 아니라 대단히 의미있는 한해입니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10년대 중 5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5년이 남은 그 첫해가 바로 1996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년은 다시한번 생각을 다듬고 전열을 가다듬어, 우리 사회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대에 대비하는 해

또한 원하던 원하지 않던, 1996년은 새로운 개방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운위되던 개방시대가 막상 실제로 닥치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냐 하는 것이 우리 정보통신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착실히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개방에 대비하는 수단

하루속히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 개방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경쟁력은 경쟁의 바탕위에서 커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의 경쟁력은 사상누각이라는 점은 역사가 가르치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이미 동구와 구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체제도 경쟁이 없으면 결국은 허약한 체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만이 개방에 대비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쟁체제 구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 당사자도 매우 고통스럽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부도 특혜시비 등으로 비난을 받기 일췌인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축하느냐,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가족 여러분의 역할은 막중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통신가족 여러분의 한층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비상한 노력을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명령과 의무부과 아닌 스스로 참여토록 접근방법 개선

정보통신부가 명실공히 경제부처로서 이같은 과업을 완수하려면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명령과 의무부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명령과 의무부과로는 어떠한 과제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측면에서 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산업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나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경쟁체제 구축과 21세기에 대비하는 정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고와 연구를 요청합니다.

우편서비스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주요기능의 하나

저는 항상 우편서비스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우편서비스야말로 비록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더라도 국가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편서비스가 신뢰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상실한다면 치안능력과도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중의 하나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알찬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혁명적인 제도개선이 없더라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이 기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저 쪽이 이렇게 안해 주니까 내가 잘 못한다』하는 정신자세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바와 관련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부문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역사는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동참할 때 역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편서비스 문제도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보통신가족 모두가 마음과 성의를 모아 생각하고 개선한다면 굳이 혁명적인 제도개선 없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같은 제도개선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마음을 모아 깊이 생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발적인 참여로

지금까지의 제 말씀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방법, 문제를 보는 접근방법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힘들고 불확실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명령이나 의무부과 등의 방식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몰리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 그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많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더욱 훌륭히 완수하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올해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더욱 성숙한 정보통신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가족 모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원만하고 긴밀한 노사관계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명랑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상호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새 아침을 맞아 다짐하는 각오와 결의가 한해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정보통신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병자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월 3일

정보통신부장관 이 석 채